

야 “상시 본회의” vs 여 “필요시 합의”… 임시국회 일정 충돌

우원식 의원 주재 회동…추경·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대치
민주당 “마은혁 임명 오늘까지 안되면 중대 결심” 한·최 쌍탄핵 예고
(덕수·상목)

여야가 급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4월 임시국회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에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 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여야 간 정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쪽집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이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담양군수 재선거 비방전 가열

민주당 이재종 “군청 이전 반대” vs 혁신당 정철원 “농지법도 위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담양군수 재선거(4월2일)를 앞두고 후보 간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와 불법 유세차량, 농지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종 후보는 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철원 후보는 지난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종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유세차량 불법 운행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있느냐”며 “이 후보자가 당당하다면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운운하며 조국혁신당을 후보도 못 낼 정당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 후보의 이날 입장문은 자신이 제시한 이 후보의 부적절한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전날 이 후보 측이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을 그만두라”는 입장문을 낸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정 후보는 “후보검증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가 사설로 드러났음에도 사과나 반성없이 네거티브로 매도하는 것은 성숙한 정치인으로 보여줄 태도는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재종 후보는 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

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정 후보의 군청이전 공약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적 절차와 재원마련 방안, 원도신 공동화 대책 등을 감안하면 짧은 임기 내에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게 이 후보측 주장이다.

이 후보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예비비를 포함한 추경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재난지원에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억대가 소요되는 군청이전 사업을 행안부와 기재부가 허가 해줄리 없을 것”이라며 “담양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특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한데 정철원 후보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측이 선관위에 ‘이 후보가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재산 상황에 소유 토지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이의제기 건에 대해 ‘이 후보가 6230만 5000원을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해당 공고문을 각 투표구와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각각 5매, 1매씩 첨부(貼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는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가 사실로 판명되자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권한대행 임명 제한” 이재명 대표 회동 제안

야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결…국힘, 반발해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추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소위 심사에 앞서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잡히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임으로 긴급성, 중대성 측면을 고려해도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회동 제안

한덕수 대행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 대행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오늘 한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원내 제1당 대표의 간곡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정 중인 적국과도 대화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차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 대행의 이런 처신이 옳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공보실은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 15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종 부 채	
1. 유 동 자 산	104,580,441,956	1. 유 동 부 채	97,543,831,220
(1) 당 좌 자 산	104,580,441,956	1. 매 입 채 무	4,585,509,299
2. 미 수 권	1,291,480,246	2. 단 기 차 입 금	65,686,584,000
3. 단 기 대 여 금	25,524,862,271	3. 미 지 급 금	6,200,705,571
4. 선 금 금	6,000,000	4. 미 지 급 비 용	9,537,689,692
5. 선 금 사 환 가	76,002,896,362	5. 예 수 금	17,887,973
6. 선 금 비 용	1,681,974,169	6. 부 가 세 예 수	165,325,235
7. 단 기 보 충 금	28,791,248	7. 선 수 금	295,101,450
8. 단 기 법 민 채 자	45,034,050	8. 예 수 증 금	57,068,000
9. 유 동 장 기 차 입 금	1,413,610	9. 유 동 장 기 차 입 금	11,000,000,000
2. 비 유 동 자 산	71,205,567,049	2. 비 유 동 부 채	50,000,000,000
(1) 투 자 자 산	25,296,060	1. 장 기 차 입 금	50,000,000,000
(2) 유 형 자 산	25,296,060	2. 퇴 직 금 여 충 당 부 채	-
3. 기 타 회 회 채 자	71,166,557,656	부 채 총 계	147,543,831,220
4. 기 타 회 회 채 자	17,147,274,595		
5. 기 타 회 회 채 자	30,926,541,077		
6. 기 타 회 회 채 자	21,041,957,612		
7. 기 타 회 회 채 자	1,696,653,566		
8. 기 타 회 회 채 자	13,322,184		
9. 기 타 회 회 채 자	412,573,429		
10. 기 타 회 회 채 자	10,712,970		
11. 기 타 회 회 채 자	17,112,223		
1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3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4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5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6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7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8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9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0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1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2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3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4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5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6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7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8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19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0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1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2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3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4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5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8.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69.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0.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1.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2.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3.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4.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5.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6.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7. 기 타 회 회 채 자	13,713,333		
278. 기			